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종교 가능성

2010년 7월 정부의 4대강 개발 즉각 중단 등을 촉구하는 '조계종 승려 4812인 생명평화선언'에는 5000여 조계종 스님들이 참여함으로써 한국불교 사상 최대 규모의 시국 선언으로 기록됐다.

가톨릭도 3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춘계 총회에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주교단 명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교단 명의의 사회적 쟁점을 두고 성명서를 낸 것은 25년 만의 일이었다.

개신교는 6월 중순에는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포함된 5대 종단 지도자 500여 명이 남북정상 회담과 대북 인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등 사회적 이슈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대강 사업, 용산참사, 환절과, 대북 지원, 낙태 등 사회문제의 선두나 배후에는 성직자들이 있었다. 특정 종교가 특정 사회문제를 두고 교리적으로 접근해 적극적으로 나서다가 하면, 4대 종단이 시민단체와 연대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종교와 시민사회의 결합에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주요 종단들은 다문화로 대표되는 시민사회의 흐름을 역행하며 사회 권력화 되거나, 종단 기본교리에 어긋나는 행동도 서슴지 않고 있다.

시민사회의 가치기준으로 한국 종교의 현주소는 어디일까? 종교적 신념과 가치 체계에서 종교와 시민사회의 결합모델을 찾고 종교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살펴보는 자리가 펼쳐졌다.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자승, 이사장 오현, 이하 선양회)는 7월 13일부터 8월 3일까지 서울 만해NGO센터에서 '한국사회에서의 시민종교 가능성'을 주제로 불교, 가톨릭, 개신교 3대 종단의 시민사회와 소통 가능성과 방법론을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만해사상실천선양회와 함께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우리신학연구소,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주관으로 8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2010만해축전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강연이었다. 심포지엄에서는 '불교, 천주교, 개신교와 시민사회의 소통가능성과 방법론'에 대한 연구자료 발표와 함께 윤남진 NGO리서처 소장의 '종교와 시민사회, 그 관계의 진화'의 발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상연 기자

열린 자세 · 낮은 문턱으로 시민사회와 소통

#시민종교 지향하는 불교

불교는 시민종교를 지향한다. 석존 당시 인도의 근대화, 상업 및 도시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평등이념을 내걸고 상업 세력의 지위와 권익을 옹호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석존은 중의(衆意)에 의해 운영되는 것, 신들의 권위에 의존하기를 부정했다.

시민종교로서 불교가 지향하는 비는 시대적 질곡을 건넌다는 혁신을 성취하는 것이다. 방법론으로는 공화적 이상을 견지했다. 남북대결(분단극복), 4대강 문제(문수 스님 소신공양), 방법론적으로 공화적 이상을 저버리는 독단의 국정(5공으로의 회귀) 등에 대해서 비판하는 참여불교적 접근은 불교의 본질에 부합하는 시민종교로서 불교의 참된 모습이다.

승가의 운영 메카니즘이라 할 갈마법(羯磨法)은 공화국의 이념 및 규정과 결부된 것이다. 구족제 의식이나 특별한 소임을 맡을 비구의 선출, 승단에서 발생한 쟁사의 해결 등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비롯해 승단의 중요한 정기행사인 포살이나 자자 등도 모두 갈마에 의해 진행된다. 승가갈마의 목적은 교단을 통제하고 유지 발전시켜 화합된 승가를 만드는 데 있다. 갈마법이 체제화 된 승단은 공화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원리인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열린'과 직결된다. 공론장에 참여하는 개방성은 자기검열을 기제로 한다. 불교와 시민사회의 소통의 가능성은 불교의 자기 검열의 개방성에 있다.

불교가 시민사회와 소통하는 사상적 기반은 내세관, 인과관, 관용관이다. 현세를 중시하며, 현세에만 머물지 않고 과거와 미래를 통관하는 삼세관은 자기이의 중심적이기 쉬운 시민들의 안목과 호흡을 길게 해 준다. 인과관과 관용관은 시민사회에 필수적인 것이다. 인과관은 자기 책임의 원리이며, 관용관은 사회통합의 원리다.

<법화경> 방편품에는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를 방법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불교가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시민들을 깨침으로 이끄는 방법론에는 이 네가지를 상징할 수 있다. 4가지 방법론은 '법화칠유(法華七喻)'에 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소통하는 지혜가 녹아있다. 지혜의 종교인 불교는 다양한 근기의 중생이 숨 쉬고 있는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7가지 비유에 보이는 지혜의 방법론 즉 방편을 사용할 수 있다.

#종교의 권력화 경계해야

이찬수 종교문화연구원장(前 남대교수) 개신교의 시민종교의 가능성은 이웃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종교적 자세, 공정한 형식 속에서 자발적인 대화와 공동의 합의에 근거한 보편성 확보에서 비롯된다.

세계는 도시화, 대량생산에 따른 분업 가속화, 제도의 급증, 국가종교 쇠퇴, 집단보다는 개인의 목소



7월 5000여 조계종 스님이 소신공양 문수 스님의 뜻과 의지를 계승하고 4대강 개발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선언에 동참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불교 지향점은 시대 질곡 넘는 혁신 성취 보수적인 개신교의 의도적 선교정책 지양 종교의 사회권력화 배제 천주교단 쇠신

리가 존중되고 있다. 사생활화, 분화된 사회형성, 종교의 독점도 사라지는 것이 인류사의 흐름이다. 특히 '다원화' 속에서 종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의견' 차원에서 변모한다. 여러 종교들이 백화점에 전시돼 고객의 선택을 기다리는 상품 같은 상황에 처하는 '시장상황(market situation)'에 놓이게 됐다. 이런 현상을 '세속화'라고 한다. 진리의 초월성보다는 진리의 내재화, 진리를 내면에서 찾는 것을 중시한다.

한국의 개신교는 초자연적유신론, 근본주의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지만 하향적, 획일적, 통일적 일방통행을 여전히 꿈꾼다. 한국 개신교가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위해서는 내적 가치를 남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자세를 줄이고, 영적 복지가 종교들의 공공성 확립을 통해 확대돼야 한다. 한국의 경우 보수적 개신교의 의도적 선교정책과 언어는 종종 '시민종교'적 흐름의 역행이 지속되고 있다.

수평적 개인 사회에서 종교가 권력의 힘을 빌어 세를 확장하려는 것은 종교의 내실이 빈곤해져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일이다. 종교의 이름으로 타자를 억압하는 행위가 가장 반종교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종교의 권력화는 경계해야 한다. 기독교가 권력과 야합하는 현상은 이미 대대로 한국의 기독교가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증거이자, 그것을 기독교 지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범재신론(汎在神論, panentheism)'이라는 신관에 대한 인식의 폭이 확장되고 있다. 모든 것이 하늘님 안에 있으니, 신은 모든 것보다 더 큰 이가 된다. 그 큼을 나타내는 말이 '초월성'이다. 즉 신을 구름 너머 특별 공간에 있는 존재로 상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인간안에 계신 분으로 만나고자 한다.

완전한 절대주의, 순수한 객관주의라는 것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이다. 시민종교는 제도화된 종교와는 무관해 보이지만 의사소통이나 사회 통합적 차원에서는 사실상 종교의 역할을 강조한다. 진리는 '대화'를 하고 '관계'에 의한 것일 때 대중에게 설득력을 주고 있다. 공정한 형식 속에서 자발적인 대화와 공동의 합의에 근거한 보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웃의 권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할 줄 아는 성숙한 종교적 자세가 요청된다.

#내적 쇠신으로 시민사회 흐름에 따라야

박문수 한국 가톨릭문화연구원 부원장

가톨릭은 내적 쇠신에 주력해야하고, 시민사회와 공동의 대의를 위해 협력하는 일도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가톨릭은 시민사회에 대한 입장을 개인의 권리 행사를 위한 새롭고 긍정적인 길을 열어주어 민주주의 생활을 질적으로 풍부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평가한 다(간추린 사회교리, 419쪽).

가톨릭 사회교리의 관점에서 볼 때 시민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따라서 교회가 시민사회와 협력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교회의 본래 사목 직무에 해당되는 것이다.

가톨릭이 시민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선행과제는 종교NGO들이 제기하고 있는 종교권력 담론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종교권력 담론의 내용은 한국의 주요 종단들이 사회권력화 됐고, 자신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모순된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성직자의 권위주의, 불투명한 재정운영, 시민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충돌하는 재원 운용, 권력 다툼이 온존하는 등 교단 쇠신도 중요한 과제다.

2010년 춘계 주교회의 총회에서 발표한 성명서와 같이 국가의 중요의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가톨릭 사회교리에 일방적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특히 발표 문헌은 사회분석이 탁월하고 이에 대한 처방도 매우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일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려면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신자 학자들이 양성돼야 하고, 주교회의의 산하에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연구소나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NGO들의 가톨릭 접근도 중요하다. NGO에서 천주교 고위성직자를 직접 예방하거나, 초청해 활동을 소개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직접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이해를 시키는 과정은 필요하다. 사업을 구상할 때 종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혜봉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양지곡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